

## 린사이지(전단지)

### 린사이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다이초 대사(682-767 년) 라는 불승은 깨달음을 얻기 위해 하쿠산에 오르는 것을 오랜 세월에 걸쳐 꿈꿨습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어느 날 밤, 아름다운 여신이 꿈에 나타나 다이초 대사에게 이렇게 계시했습니다. “저는 하쿠산의 화신입니다. 저를 찾고 싶으면 하쿠산의 정상까지 오르십시오.”

이 꿈에 이끌린 다이초 대사는 36 세 때 2 명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등정에 성공하였기에 하쿠산은 후지산, 다테산과 함께 일본 3 대 영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주요 순례지인 하쿠산에는 옛날에 수천 개의 불상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돌로 된 소박한 지장보살로, 참배객이 조각한 물건일 때가 많았습니다. 또한 산 중턱 사원에는 조각이나 동제로 된 걸작도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 사람들은 영봉 하쿠산과 불상을 모두 믿었습니다만, 메이지시대(1868-1912 년) 가 되자 정부는 신도의 국교화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신도와 불교를 강제적으로 나누는 신불분리라는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불교는 상황이 완전히 바뀌어 배척의 대상이 되었으며, 많은 불교 사원이 없어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또한 무수히 많은 불상과 법기가 파괴되었습니다.

하쿠산의 정상에 이어지는 등산길을 따라 있었던 작은 절들도 대부분 파괴되었고 지장도 거의 철거되었습니다. 하지만 신앙심이 두터운 사람들은 몇 세기에 걸쳐 산에 계속 세워져 있던 불상과 지장을 구하기 위해 불상과 지장을 산에서 아래로 옮겨서 숨겼습니다. 이러한 불상 중 8 개가 현재 린사이지에 안치되어 있습니다.

불상 A 는 옛날에 센자가이케 연못 옆에 있던 동조 지장보살상입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따르면 다이초 대사의 시대에 하쿠산에는 뱀이 너무 많아서 산에 오르는 승려의 수행에 방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이초 대사는 1,000 마리의 뱀을 모아서 항상 눈으로 덮여 있던 산 정상의 바로 밑에 있는 연못으로 옮겼고, 얼음 구멍을 뚫어서 뱀을 던져 넣었습니다. 이 일에 따라 연못은 센자가이케 연못(1,000 마리 뱀의 연못) 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이 연못은 하쿠산에서 흐르는 4 대 하천 중 하나인 데도리강의 수원(水源)이기도 합니다.

불상 B 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동조 십일면 관음상으로 11 세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머리가 작은 10 개는 득도의 단계를 나타내며, 제일 위에 있는 약간 큰 머리는 관음의 원래 모습인 아미타불을 나타냅니다. 원래 고젠가미네의 산기슭에 있는 무로도에 놓여 있던 이 불상은 가장 처음에 나무로 조각한 거푸집을 이용해 나중에 구리로 주조한 것입니다. 이 관음상은 헤이안시대(794-1185 년) 후기에 해당 기법을 이용한 몇 안 되는 희귀한 작품으로, 중요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미타여래상(상 C) 은 원래 해발 2,684m 의 오난지미네 산 정상에 있었습니다. 이 우아하고 아름다운 아미타여래상의 뒤에는 1822 년이라고 새겨져 있습니다.

다이초 대사의 제자들은 717 년에 처음으로 정상에 도착했을 때 부처에게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눈부시게 빛나는 십일면 관음보살이 하쿠산의 최고봉인 높이 2,702m 의 고젠가미네에 나타났습니다. 3 명은 바로 불상을 조각해 이 기적을 기리고 이를 산 정상에 설치했습니다. 불상 D 는 이 목상을 재현했으나, 바람과 비에 의해 상태가 온전하지 않습니다. 1824 년에 구리로 주조된 무게가 207kg, 불상 높이가 109cm 인 이 관음보살상은 이 높이의 산에 안치된 불상 중에서는 세계 최대급입니다. 하쿠산에 쉽게 운반하기 위해 분할해서 주조했습니다만, 파괴되지 않도록 현지 사람들이 산에서 아래로 옮길 때도 이것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불상 E 는 원래는 벳산 정상에 놓여 있던 성관음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아미타여래상의 제작자이기도 한 후지와라 도미오미가 구리로 주조했습니다. 주조 시기는 1822 년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불상 F 는 1712 년에 조각된 목조 약사여래상입니다. 약사여래는 치유와 의술을 관장하는 부처입니다. 원래는 하쿠산 산기슭에 있는 이치노세 온천의 원천 옆에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목상 G 는 717 년에 처음으로 하쿠산 등정에 성공한 다이초 대사(682-767 년) 라는 불승이 조각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히노키노슈쿠라는 오래된 등산길의 입구에 설치되어 있던 것입니다. 현재는 불상의 상반신만 남아 있습니다.

현재 등산길을 이용하면 산 정상까지 걸리는 시간은 약 5 시간입니다. 하지만 다이초 대사와 그 제자 2 명이 등정을 시도했을 때, 이러한 산길은 없었습니다. 불상 H 는 처음으로 하쿠산 등정을 달성했을 때의 다이초 대사를 본떠 만든 목상입니다. 1611 년에 조각된 것입니다.

- A. 동조 지장보살 좌상(1183 년)
- B. 동조 십일면 관세음보살 입상(11 세기)
- C. 동조 아미타여래 좌상(1822 년)
- D. 동조 십일면 관세음보살 좌상(1824 년)
- E. 동조 성관세음보살 좌상(1822 년)
- F. 목조 약사여래 좌상(1712 년)
- G. 목조 석가여래상(8 세기)
- H. 목조 다이초 대사 좌상(1611 년)